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2026년 10월 넷째 주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실제 사연이에요. 이 친구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따돌림 때문에 혼자 밥을 먹고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어 큰 외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팀을 같이 하는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다가와 주었대요. 그 작은 손길 덕분에 이 친구는 다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었고,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깊은 감사를 느꼈다고 해요.

또 다른 친구는 캠프 이후에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친구를 보고 처음엔 '나까지 같이 따돌림당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그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에서도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 사울과 대적들이 성도들을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은 집에서 끌려 나와 감옥에 갇히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흩어짐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나요?"라고 묻고 싶을 만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눈앞의 고통과 외로움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겪는 아픔까지도 사 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다 같이

말씀봉독 사도행전 8장 1~4절 다 같이

말씀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공동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찬양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내가 주인 삼은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부모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풍랑이 찾아올 때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알아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가 외롭거나 지칠 때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하심을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자 네] 하나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만 보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세요.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온 가족]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Q1.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정답: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Q2.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혹은 주변에 힘들고 소외된 친구를 보며 내가 주저했던 적이 있나요? 사연 속 학생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건네거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봐요.

Q3. 내 힘으로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고만이 있을 때, 낙심하는 대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딛고 싶은 작은 실천 한 가지를] 결단해 보아요.